



2012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총괄 주제]

일본국제교류기금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CURRENT STATE OF JAPANESE STUDIES IN KOREA

■ 본 조사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일본연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일환입니다.

본 조사연구는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공동조사연구에 의한 것이며,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소장이 총괄하였습니다.

본 조사연구는 2005년 이후의 한국에서의 일본연구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단, 분야에 따라 그 조사대상의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의 연구조사는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진창수 역음, 2007, 한울아카데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필자 |

- 진창수 _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소장, 책임연구자
- 이면우 _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도형 _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 윤병남 _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일본문화전공교수
- 최 관 _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교수
- 최재철 _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일본학부교수
- 이강민 _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교수
- 한영혜 _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제8장 한국에서의 일본 사회문화 분야 연구 동향

한영혜 (서울대학교)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이 연구는 2005년 이후 한국 일본학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학제적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2006-2011년에 이루어진 일본 사회문화 관련 연구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한국에서 일본학의 발전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는 많은 대학에 일어일문학과가 신설되었고, 1990년대에는 지역학(지역연구)으로서의 일본연구가 대두함과 더불어 대학에 일본(지역)학과들이 신설되었다. 90년대에는 세계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해외지역연구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특정 분과학문을 넘어서는 지역연구로서의 일본연구의 성장과 제도화에 기여했다. 일본에 유학한 연구자들이 귀국하여 학계에 자리를 잡고 활동하게 된 것도 이 시기 일본 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학과 설립 외에 일본 전문 학회, 학술지, 연구기관 등 일본연구의 제도화가 진전되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형 학술지원 프로그램에 힘입어 한국의 일본 연구가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인문사회기초연구지원, 중점연구소지원, 2단계연구중심대학(BK21)육성사업, 인문한국(HK)지원,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등 한국연구재단의 대형 사업들은 대학에 일본에 관한 교육 거점 외에 연구 거점이 설립되는 데 기여했으며, 이런 사업들을 통해 학제적인 일본연구와 국제학술교류가 증대한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2000년대에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발전과 더불어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공동개최를 계기로 민간 교류가 현저히 증대했다. 학계, 문화계, 시민사회, 일반시민 등 다양한 층에서 교류의 증대와 다양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2000년대 한국의 일본연구는 90년대와는 또 다른 발전을 하게 되었다. 2000년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다. 지역연구는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발전했으며, 이는 일본 연구에도 영향을 끼쳤다. 적어도 1990년대까지 인문사회학계에서는 주로 일본 전문 연구자들이 일본 연구를 했으나, 2000년대에는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 또는 동아시아 국가들,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공유하는 문제들에 대한 학문적 대응으로서의 일본연구가 대두했고, 이른바 비일본전문가에 의한 일본연구도 증대했다. 영어를 매개로 한 학문적 교류와 학술활동도 현저히 증대하였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한일 양편에서 이를 촉진하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2000년대 일본연구의 맥락은 90년대와는 다르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2000년대 후반에 더 현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회문화 분야 연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맥락에 놓인 한국 일본연구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분석 대상 학술지와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일본관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했다. 일본에 관한 연구 성과는 주로 논문이나 저서의 형태로 발표되며, 논문의 경우 일본관련 전문학술지뿐 아니라 동아시아 또는 좀더 포괄적인 지역연구 관련 학술지, 나아가 다양한 전공 분야의 분과학문 학술지에도 발표된다. 우선 ‘일본전문가’ 또는 ‘일본연구자’의 학술활동이 일본지역연구와 분과학문 양편에 걸쳐 있는 만큼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지의 범위도 일본 전문학술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는 이른바 ‘일본전문가’가 아닌, 즉 일본지역 연구자로 범주화되지 않는 연구자들이 지역연구가 아닌 분과학문의 이론적 관심에 따라 일본을 사례로 연구하거나, 국제비교의 일환으로 일본을 연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의 현황과 특징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연구로서의 일본학이라는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분과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본지역연구의 제도화와 양적 성장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동향을 고찰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일본관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학문 영역의 학술지를 참조하는 정도로 한다.

일본관련 전문학술지는 그 수가 상당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만 해도 20종이 넘는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총 12개 학술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첫째, 2011년 이전에 창간된 일본관련 학술지 중 종합적·학제적인 일본연구를 표방하는 학술지. 둘째, 학회와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셋째, 발간기관이 어문학 기반을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능한 한 같은 비중으로 고찰하였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일본학을 표방하는 학술지들 가운데서도 특정 분과학문이 발간 주체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라도, 분과학문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일본연구 학술지를 지향하고 이를 표방하는 학술지는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두 번째로 발간기관과 관련해서는 학회와 연구소가 함께 들어가도록 하였다. 학회는 본래 회원들의 학술활동과 학술교류의 장으로서, 주요 학회들의 학술지가 학문적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학 연구소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곳도 있지만, 학회에 비해 학술지의 학계 내에서의 위상과 존재감은 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의 비교적 규모가 큰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연구성과를 내거나 하는 경우, 연구거점으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학술지의 위상 강화에 힘쓰는 경우가 증대했다. 따라서, 학회와 연구소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본에 관한 학문적 담론을 주도하는 양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함께 고찰해보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학술지를 발간기관의 성격에 따라 어문계와 비어문계로 나누어 이 두 범주가 가능한 한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여기서 ‘어문계’, ‘비어문계’라 함은 학술지가 어문학 분야 논문을 주로 게재하는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분석 대상 학술지는 ‘종합적·학제적인 일본지역연구’를 표방하는 학술지이나, 발간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를 어문계와 비어문계로 구분하였다. 학회의 경우, 어문학 분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어문계와 비어문계로 구분했다. 학회 활동에서 어문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여부는 각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혁과

학술활동 정보, 학회 이사나 임원진 경력 등을 토대로 해서 판단했다. 대학 연구소의 경우는 일어일문학과 기반에서 출발한 연구소를 어문계, 학과 기반이 없거나 비어문계 학과를 기반으로 한 경우를 비어문계로 분류했다.

이렇게 발간기관의 성격에 기초해서 ‘어문계’와 ‘비어문계’를 고르게 선정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일본연구·교육의 제도화 과정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한국은 대학 내에 일어일문학과가 설립되면서 일본연구의 제도적·인적 기반이 어문학 쪽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이후 비어문학계의 일본 지역학 또는 국제학 관련 학과가 설립되면서 학회 활동이나 인적 기반 면에서 별도의 영역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사회문화’ 분야의 폭이 너무 넓어서 같은 사회문화 분야라 해도 이 두 영역 사이에 논문의 경향이나 저자 풀 등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문계와 비어문계 학술지를 고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본 연구의 기저에 있는 문제의식, 즉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의 제도화의 성격과 일본학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비어문계와 어문계로 분류해서 양자의 관계를 보는 것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표 VIII-1>과 같이 5개 학회와 7개 연구소의 총 12개 기관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12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표 VIII-1> 분석대상 학술지 총괄

학회지명	창간연도	발간기관	등재연도
일본학보	1973	한국일본학회	2002 등재
일본문화학보	1996	한국일본문화학회	2004 등재
일본근대학연구	1999	한국일본근대학회	2009 등재
일본연구	1985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6 등재
일본연구	2000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0 등재
일본학연구	1995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7 등재
일본연구논총	2000	현대일본학회	2006 등재
한일민족문제연구	2001	한일민족문제학회	2007 등재
한림일본학	1995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2 등재
국제지역연구	1993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4 등재
일본공간	2007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미등재
일본비평	2009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미등재

우선, 학회 학술지는 『일본학보』(한국일본학회), 『일본문화학보』(한국일본문화학회), 『일본근대학연구』(일본근대학회), 『일본연구논총』(현대일본학회) 그리고 『한일민족문제연구』(한일민족문제학회) 등 5종이다. 앞에서 제시한 어문계/비어문계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일본학보』, 『일본문화학보』, 『일본근대학연구』는 어문계 즉 일본어문학 분야가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회들이 발간하는 학술지이며, 『일본연구논총』과 『한일민족문제연구』는 비어문계 학술지로 분류된다. 어문계로 분류된 『일본학보』, 『일본문화학보』, 『일본근대학연구』 중 『일본문화학보』와 『일본근대학연구』는 당초 어문학 중심 학술지로 출발했다가 종합적인 일본학 학술지로 성격을 바꾼 경우다. 반면

『일본학보』는 처음부터 계재 논문이 일본어문학에 국한되지 않았다.

비어문계에 속하는 『일본연구논총』의 발행기관인 현대일본학회는 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하며, 정치학자들이 학회 활동의 주축인 만큼 일본 정치 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에 비해 『한일민족문제연구』를 발행하는 한일민족문제학회는 역사학 연구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두 학술지 계재 논문도 정치학, 역사학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종합적·학제적인 성격을 표방하고 있다. 『한일민족문제연구』는 한일관계, 민족 문제에 특화된 학회, 학술지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일본연구’라는 첫 번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민족, 디아스포라 등의 주제는 사회문화 분야의 중요한 주제이며, 이에 대한 특정 분과학문을 넘어서는 학제적 접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예컨대 일본사학회나 한일경상학회, 그 외의 일본 전문인 동시에 특정 분과학문을 표방하는 학회의 학술지는 사회문화 관련 논문이 실릴 가능성이 있더라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학 연구소 학술지로서는 『일본연구』(한국외국어대 일본연구소), 『일본연구』(고려대 일본연구센터), 『한림일본학』(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연구』(단국대 일본연구소), 『일본공간』(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일본비평』(서울대 일본연구소) 등 6개 일본연구기관의 학술지와 일본에 특화되지 않은 지역연구소 학술지로서 『국제지역연구』(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이상 총 7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외대, 고대, 단국대의 연구소들은 이 논문의 분류 기준에 의한 어문계와 비어문계 중 전자에 해당하며 한림대, 국민대, 서울대의 연구소들은 후자에 해당한다. 『일본연구』(외대), 『일본연구』(고대), 『일본학연구』(단국대)는 어문학 중심 학술지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범위를 확장하여 종합적인 학술지로 성격을 전환하였으며, 『한림일본학』, 『일본공간』, 『일본비평』, 『국제지역연구』는 처음부터 지역연구 학술지로 출발했다.

어문학 기반이 있는 연구소의 학술지는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등재학술지 가운데서 등재 시기와 발간기관인 연구소의 연구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⁷⁸⁾. 비어문계 일본연구소의 학술지는 수도 적고, 상대적으로 창간 시기가 늦어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가 된 경우가 적다. 따라서, 등재 여부보다는 독자적인 연구역량과 연구 기반을 갖추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가 여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국제지역연구』는 일본에 특화된 학술지는 아니지만, 1990년대 초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의 학술지로 창간되어 『일본학보』와 더불어 지역연구로서의 일본 연구 논문이 발표되는 장으로서 기능했다. 현재 발행기관인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의 전신은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이며,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이 지역종합연구소 일본연구실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런 점에서 『국제지역연구』는 한국의 일본연구 동향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⁷⁹⁾.

78) 일어일문학과를 기반으로 한 대학 일본연구소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일본학으로)를 갖고 있는 곳은 상기 3개 기관 외에도 중앙대, 동국대, 한양대 등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상기 3개 학술지로 한정해도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어문계와의 비율을 고려하여 3개만을 선정하였다.

79) 한림대와 국민대는 각각 학부에 비어문학 계열인 일본학과와 국제학부 일본학전공이 있으며, 이들은 일본연구기관과 관련이 있는 하나, 한림대 일본학연구소의 경우 일본학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과는 별도로 한림과학원에 설립,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학과로부터 독립적인 연구소로 출발한 경우다. 국민대 일본연구소는 국

2.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6년-2011년의 연구 동향의 특징을 1990년대 이후 일본연구의 흐름 속에 자리매김하여 파악하고자 했다. 1990-2011년 사이에 상기 12개 학술지에 발표된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의 양적 추이와 다뤄진 주제의 빈도 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1990년대, 2000년대 전반(2000-2005년), 2000년대 후반(2006-2011년)의 시기별 추이를 통해 2006년 이후 최근 6년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계열적 분석과 더불어 12개 학술지를 앞에서 밝힌 기준에 따라 어문계와 비어문계로 구분하여 두 그룹의 추이를 비교·고찰하였다.

사회문화 분야 논문의 양적 추이와 연구 주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 대상인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사회문화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 차적으로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어문학 분야 논문을 추려내고, 그 나머지 논문들을 정치, 경제, 역사, 사상, 사회문화로 분류하였다. 이 모든 논문을 읽고 내용에 의거해서 분류하는 것은 한정된 기간의 연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필자의 역량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논문 제목의 주제어에 기초해서 분류하였다.

전체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난점들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논문의 주제에 의거해서 분류하였으나, 사회적 합의가 큰 주제나 보편성이 있는 주제들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우선 어문학과 비어문학의 분류에서도 예컨대 사회현상으로서의 언어, 언어 정책 등을 다루거나 사회적 쟁점이나 사회문제를 문학 텍스트를 통해 논하는 경우 등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공동연구팀 내에 어학, 문학 분야를 별도로 두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어문학으로 처리하였다. 신화를 다룬 논문도 애매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문학적 텍스트로 간주하여 어문학으로 분류하였다.

1차 분류를 통해 추려낸 비어문학계 논문을 다시 정치, 경제, 역사, 사상, 사회문화 등 5개 분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논문의 주제가 복수의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노동, 사회보장, 고령화 등의 주제는 사회와 경제 양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거버넌스, 시민사회, 지방자치 등은 사회와 정치 양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사학회는 사회학에서 출범한 한국사회학회의 분과학회이지만 다양한 전공자들이 활동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지니며, 사회사 분야의 연구도 사회, 역사, 사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일제시기 도시에 대한 연구나 이주, 또는 지식에 관한 연구가 그 예다. 이러한 현상은 각 분과학문에서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 합의가 큰 주요 주제들에 관해서는 학제적 연구 또는 융·복합적 연구들이 증대하고 있는 점도 분류의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이다.

제학부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정치, 국제관계를 주축으로 출발하여 사회과학의 성격을 띤다. 서울대에는 학부에 일본 관련 학과가 없고, 국제대학원에 소규모의 교육 기반이 있으며 일본연구소는 이와 관련은 있으나, 국제대학원 일본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설립된 것은 아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일본연구실에서 출발하여 지역종합연구소가 국제대학원과 국제학연구소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쳐 국제학연구소 산하 연구센터에서 독자적인 연구소로 독립한 것으로, 그 출발점은 교육 기관보다 앞선다. 분석 대상 학술지로서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의 『국제지역연구』를 포함시킨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3. 양적 추이

이상과 같이 분류해본 결과, 1990–2011년에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비어문학 논문은 총 1,455편이었다. 그리고 비어문학 논문 중 사회문화 분야는 622편으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였다. <표 VIII-2>는 1990–2011년에 출판된 비어문학 분야 전체의 논문 편수를 연도별·학술지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VIII-2> 1990–2011년 12개 일본전문 학술지 비어문학 논문 양적 추이

	일본 학보	일본문화 학보	일본근대 학연구	일본연구 논총	한일민족 문제연구	한림 일본학	국제지역 연구	일본연구 (외)	일본연구 (고)	일본학 연구	일본학 연구	일본공간	일본비평	계
1990	5	0	0	0	0	0	0	0	0	0	0	0	0	5
1991	4	0	0	0	0	0	0	0	0	0	0	0	0	4
1992	5	0	0	0	0	0	0	0	0	0	0	0	0	5
1993	17	0	0	0	0	0	13	0	0	0	0	0	0	30
1994	0	0	0	0	0	0	8	0	0	0	0	0	0	8
1995	10	0	0	0	0	0	7	0	0	0	0	0	0	17
1996	9	4	0	0	0	4	2	0	0	0	0	0	0	19
1997	8	0	0	0	0	3	7	0	0	0	0	0	0	18
1998	7	2	0	0	0	9	6	0	0	0	0	0	0	24
1999	10	0	0	0	0	10	2	0	0	0	0	0	0	22
2000	14	2	0	7	0	10	3	3	0	0	0	0	0	39
2001	14	5	0	16	3	8	5	4	0	0	0	0	0	55
2002	20	11	0	13	4	0	6	0	0	0	0	0	0	54
2003	23	12	0	20	7	4	5	5	0	0	0	0	0	76
2004	35	12	0	19	10	1	4	6	0	1	0	0	0	88
2005	23	11	15	20	10	7	4	6	0	0	0	0	0	96
2006	7	9	18	20	5	6	0	11	5	9	0	0	0	90
2007	19	11	27	20	17	4	0	6	0	12	14	0	0	130
2008	20	19	26	19	10	0	3	7	5	11	10	0	0	130
2009	13	19	24	19	1	7	1	16	20	20	11	9	0	160
2010	19	24	36	17	4	12	3	14	7	6	16	24	0	182
2011	22	15	51	20	7	11	7	16	15	9	14	16	0	203
계	304	156	197	210	78	96	86	94	52	68	65	49	0	1455

그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0년대 들어 그 증가 폭이 현저히 커졌다. 같은 기간 사회문화 논문 편수를 역시 연도별 학술지별로 정리한 <표 VIII-3>을 보면, 비어문학 분야 전체 논문과 비슷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표 VIII-3〉 1990-2011년 12개 일본전문 학술지 사회문화 분야 논문 양적 추이

	일본학보	일본문화 학보	일본근대 학연구	일본연구 논총	한일미족 문제연구	한림 일본학	국제지역 연구	일본연구 (외)	일본연구 (고)	일본학 연구	일본공간	일본비평	계
1990	1												1
1991	0												0
1992	4												4
1993	5						9						14
1994	0						5						5
1995	7						4						11
1996	3	2				0	0						5
1997	1	0				1	6						8
1998	2	1				5	5						13
1999	5	0				4	1						10
2000	3	1		0		6	0	1					11
2001	4	3		4	2	2	2	1					18
2002	6	4	0	1	1	0	2	0	0	0	0	0	14
2003	12	6	0	6	6	2	4	3	0	0	0	0	39
2004	13	7	0	4	4	1	1	3	0	1	0	0	34
2005	12	4	5	1	2	2	0	3	0	0	0	0	29
2006	2	7	8	1	3	6	0	4	3	6	0	0	40
2007	11	7	14	3	7	3	0	4	0	6	5	0	60
2008	8	13	19	1	8	0	1	2	1	8	6	0	67
2009	7	10	11	3	1	4	0	8	5	4	2	4	59
2010	8	13	15	2	2	5	2	7	6	1	3	17	81
2011	8	7	32	3	6	6	1	10	5	5	0	16	99
계	122	85	104	29	42	47	43	46	20	31	16	37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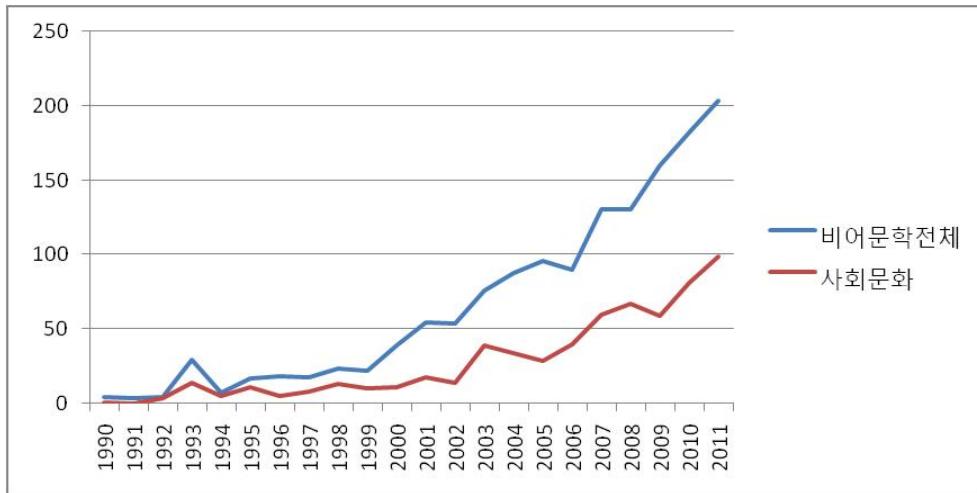
이를 <표 VIII-4>와 같이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1990년대에 발표된 비어문학 전체 논문은 152편으로 10.5%에 해당하며, 전체 논문의 약 90%인 1,303편이 2000년대에 출판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6년 간의 연구 성과는 895편으로 그 이전 6년 동안의 성과인 408편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와 관련된 논문도 총 622편 중 88.6%가 2000년대에 나왔으며, 특히 2006년대 후반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10년간 71편에 불과하던 일본의 사회문화와 관련된 논문은 2000-2005년에 145편으로 늘었고, 2006-2011년에는 그 2.8배에 해당하는 405편이 출판되어 같은 시기 비어문학 전체에 비해 좀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990-2011년에 출판된 논문 중 2006-2011년의 업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어문학 전체가 약 61.5%, 사회문화 분야가 63.5%에 이른다.

〈표 VIII-4〉 비어문학 전체와 사회문화 논문 양적 추이(1990-2011)

	비어문학전체	사회문화
1990	5	1
1991	4	0
1992	5	4
1993	30	14
1994	8	5
1995	17	11
1996	19	5
1997	18	8
1998	24	13
1999	22	10
2000	39	11
2001	55	18
2002	54	14
2003	76	39
2004	88	34
2005	96	29
2006	90	40
2007	130	60
2008	130	67
2009	160	59
2010	182	81
2011	203	99
계	1455	622

<그림 VIII-1>은 이상의 추이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이 그래프는 비어문학 논문 전체에서 사회문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200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에는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은 절대량이 커졌을 뿐 아니라, 비어문학 논문 전체에서 사회문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시기별로 사회문화 논문의 비율을 보면 1990년대에는 비어문학 논문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였다가 2000-2005년에 35.5%로 떨어졌다. 즉, 2000년대 전반에는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의 절대량은 2배 정도 증가했지만, 비어문학 분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정치, 경제, 역사, 사상 등 다른 범주의 논문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2006-2011년에는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의 비율이 약 45.3%로 10% 이상 성장하여 1990년대 수준을 회복하였다. 즉, 2006년부터 최근 6년간 한국의 일본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 성장 폭은 일본연구 전반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고 하겠다.

〈그림 VIII-1〉 비어문학 전체 논문과 사회문화 논문 양적 추이 비교(1990-2011)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12개의 일본관련 전문학술지 가운데서도 어문계와 비어문계는 증가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표 V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2011년에 발표된 622편의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은 비어문계 학술지에 214편, 어문계 학술지에 408편이 게재되었다. 논문의 절대수뿐 아니라 증가 폭 역시 어문계 학술지 쪽이 크다. 2006-2011년에 게재된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은 비어문계 학술지가 121편, 어문계 학술지가 285편으로, 각각 사회문화 논문 전체의 56.5%와 68.6%에 해당하는 편수다. 이 1999-2011년에 출판된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을 시기별로 보면, 비어문계 학술지의 경우 90년대 18.7%, 2000-2005년 24.8%, 2006-2011년 56.5%인 데 비해, 어문계 학술지는 1990년대 7.6%, 2000-2006년 22.5%, 2006-2011년 69.9%를 차지하여, 2000년대 들어 어문계 학술지 쪽의 성장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I-5〉 사회문화논문 편수 어문계/비어문계 시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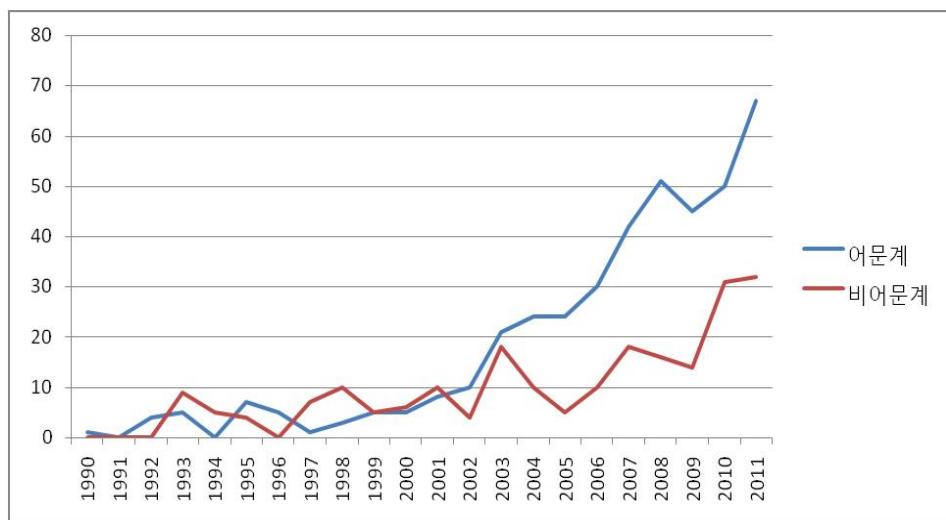
시기	어문계	비어문계
1990-1999	31	40
	7.6%	18.7%
2000-2005	92	53
	22.5%	24.8%
2006-2011	285	121
	69.9%	56.5%
계	408	214

어문계 학술지는 6개 모두 2000년대 초반 이전부터 있었던 데 비해, 비어문계 학술지는 2000년대 후반에 2개가 창간되었다. 그런데도 2006년 이후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의 증가폭은 어문계 학술지가 더 컸다. 이런 현상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일까? <부표 1>에 의하면, 『일본학보』만 2000-2005년 50편에서 2006-2011년 44편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일본문화학보』에 게재된 논문은 25편에서 57편

으로, 『일본근대학연구』는 5편에서 99편으로, 『일본연구』(외대)가 11편에서 35편, 『일본연구』(고대)는 0편에서 20편, 『일본학연구』는 1편에서 30편으로 늘었다. 반면, 비어문계의 『일본연구논총』은 16편에서 13편으로, 『국제지역연구』는 9편에서 4편으로 감소했고, 『한립일본학』과 『한일민족문제연구』가 각각 13편에서 24편, 15편에서 27편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7년, 2009년에 『일본공간』과 『일본비평』이 창간되어 각각 16편, 37편의 사회문화와 관련된 논문을 실었다.

이렇게 학술지별로 보면, 어문계는 거의 모든 학술지에서 2006년 이후 사회문화 관련 논문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이 시기 논문 급증의 주된 원인인데 비해, 비어문계는 새로운 학술지의 창간이 논문 급증에 크게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근대학연구』, 『일본연구』(고대), 『일본학연구』 등 3개의 학술지는 문학 분야 학술지로 출발했다가 종합적인 학술지로 방침을 전환하여 비어문학 논문을 쉽게 되었는데⁸⁰⁾. 그 시점은 각각 2004, 2005년이다. <그림 V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문계 학술지의 사회문화 논문은 이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급속히 증가한 데 비해, 비어문계 학술지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일본연구논총』과 『한일민족문제연구』 창간 이후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는 증감의 변화가 있다가 2000년대 후반 새로운 학술지의 창간과 더불어 다시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VIII-2〉 어문계 / 비어문계 학술지 사회문화 논문 편수 추이(1999-2011)



4. 저자의 확산: 1편 저자의 증가

세종연구소에서 작성한 2012년도 일본연구자 데이터는 총 1,114명의 일본연구자를 전공 분야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사회·문화 분야의 연구자로 분류된 사람은 불과 39명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문화 분야에 포함시키고 있는 교육 연구자는 39명이나 대부분이 일본어교육이어서 사회

80) 단국대 일본연구소의 『일본학연구』는 본래 『일어일문연구』였다가 『일본의 언어와 문학』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고 계재 논문에 대한 방침도 변경되었다. 『일본근대학연구』는 한일근대학문학회가 2000년에 한국일본근대학회로 개칭한 이후 학술지 방침이 바뀐 것이다. 고려대 일본연구센터의 『일본연구』는 벌간 주체와 명칭은 그대로이면서 계재 논문의 범주가 확장된 경우다.

문화 전공자는 극히 미미하다. 그리고, 기타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농학, 공학 등 자연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전공들이 속해 있으며, 그 중 사회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매우 소수다⁸¹⁾. 그렇다면, 1990-2011년에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622편의 사회문화 논문을 쓴 저자들은 누구일까? 분석 결과 622편의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의 저자 수는 총 3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편만 발표한 사람이 309명(77.6%)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달리 말하자면, 622편의 논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9편은 같은 기간 동안 1편만 발표한 저자에 의해 써어진 것이다. 이어서 2편의 저자가 40명, 3편, 4편, 5편, 6편이 각각 15, 16명, 8명, 4명이며, 7, 8편은 각 2명, 그리고 9편이 1명이다. 같은 기간 동안 10편 이상을 발표한 저자는 단 1명인데 21편이라는 압도적인 논문 편수를 기록했다.

〈표 VIII-6〉 1인당 논문편수별 저자 및 논문수(1990-2011)

1인당편수	저자수	총 저자중 비율	논문수	총 논문중 비율
1편	309	77.6%	309	49.7%
2편	40	10.1%	80	12.9%
3편	15	3.8%	45	7.2%
4편	16	4.0%	64	10.3%
5편	8	2.0%	40	6.4%
6편	4	1.0%	24	3.9%
7편	2	0.5%	14	2.3%
8편	2	0.5%	16	2.6%
9편	1	0.3%	9	1.4%
21편	1	0.3%	21	3.4%
계	398	100.0%	622	100.0%

1990-2011년이라는 기간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논문 편수는 매우 적은 양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는 12개의 일본관련 전문학술지에 실린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저자들이 같은 학술지에 다른 분야 논문을 썼거나, 다른 일본 관련 학술지 또는 분과학문 학술지 등에 일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본 사회문화 전문가’로 간주되는 연구자의 수와 12개의 주요 일본관련 전문학술지에 사회문화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수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1편 게재 저자의 수만 해도 ‘사회문화 전문가’의 10배에 가깝다.

저자 분석을 통해 발견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편만 발표한 저자의 수와 비중이 2006-2011년에 급증했다는 것이다. 시기별로 1편의 저자를 계산할 경우 특정 시기에는 1편만 쓴 저자가 다른 시기에도 논문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1990-2011년 전 기간을 통해 1편만 게재한 저자를 추출하여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1990-1999년에 23명이던 1편 발표자는 2000-2005년에 61명으로 증가했고, 2006-2011년에는 227명으로 급증하였다. 즉, 1990-2011년의 1편 저자 총 311명의 73%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일본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과 이를 포함한 비어문학 논문 전체의 양도 현저히 증가했는데, 논문 편수의 증가보다 1편 저자의 증가폭이 더 커

81) 세종연구소 「2012년 한국 일본학의 현황과 과제」 연구자 데이터. 2012년

다. 즉, 각 시기에 발표된 전체 논문 중 1편 저자에 의한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셈이다. 각 시기에 발표된 사회문화 관련 논문 가운데 1편만 쓴 저자에 의한 것은 90년대에 32.4%, 2000~2005년에 42.1%, 2006~2011년에 56.0%로 나타나 그런 추세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어문계 학술지와 비어문계 학술지를 비교해보니, <표 VIII-7>과 같이 비어문계에 비해 어문계 학술지에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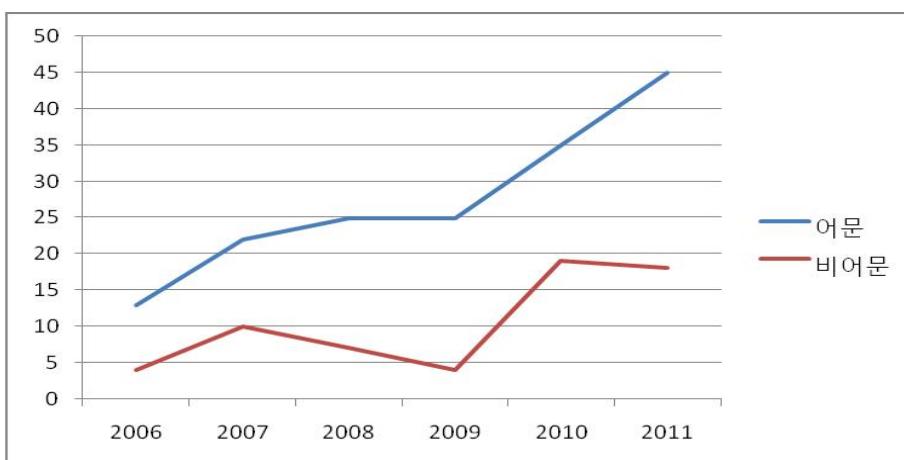
<표 VIII-7> 1편 저자 시기별 어문계/비어문계 비율

시기	어문계	비어문계	총계	비율
1990~1999	12	12	24	7.8%
2000~2005	36	26	62	20.1%
2006~2011	162	61	223	72.2%
계	210	99	309	100.0%

1편만 발표한 저자 수는 1990년대에는 각각 12명, 11명으로 거의 동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전반에는 36명, 25명으로 어문계가 비어문계의 1.4배로 늘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168명, 59명으로 어문계가 비어문계의 2.8배에 이르렀다. 2000년대 후반의 사회문화 논문편수 비율은 어문계 209편, 비어문계 136편으로 어문계가 비어문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논문을 게재했다. 즉, 2006~2011년에 어문계 학술지가 비어문계보다 논문은 약 1.5배 더 많이 게재했으나, 1편 저자에 의한 논문은 2.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편 저자 총수에서 2006년~2011년의 1편 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어문계 학술지가 61.6%인 데 비해 어문계는 77.1%이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일본(지역)학을 추구하는 일본관련 전문학술지 12개의 사회문화 분야 연구에 한정해서 볼 때, 특히 어문계 학술지를 중심으로 1편의 논문만을 발표한 저자의 팽창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2006~2011년의 연구 성과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에서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들 수 있다.

<그림 VIII-3>은 2000년대 후반 어문계와 비어문계 학술지의 1편 저자 수 연도별 추이를 비교해본 것이다.

<그림 VIII-3> 1편 저자 연도별 추이[2006~2011]



어문계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되 2008, 2009년에 정체되었다가 이후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비어문계는 2007, 2010년 두 번에 걸쳐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굴곡을 보였다. 2010~2011년 만을 보면 어문계와 비어문계가 공통적으로 가파른 증가를 보이지만, 학술지별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이 두 증가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어문계 학술지의 1편 저자 수 증가는 새로운 학술지의 창간에 의한 것인 데 비해, 어문계 학술지의 경우는 기존의 학술지에 발표 논문 수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한편, 1990~2011년에 분석 대상 12개의 학술지에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21편을 발표하였다. 같은 기간에 5편 이상 발표한 저자가 5편 8명, 6편 4명, 7편 2명, 8편 2명, 9편 1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21편은 압도적인 논문 편수라 하겠다. 특징적인 것은 이 경우 21편 모두를 어문계에 속하는 1개 학술지에만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를 제외한 5편 이상 발표자 17명의 발표 학술지를 보면, 뚜렷이 어문계와 비어문계로 나뉜다. 16명 중 양편 모두에 발표한 사람은 단 1명인데, 이 경우도 6편 중 5편을 어문계 학술지에 실었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어문계나 비어문계 어느 한쪽에만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명 중 어문계 학술지에만 발표한 저자는 8명, 비어문계에만 발표한 저자는 8명으로 비슷한 수다. 5편 이상의 저자들은 대개 연구 경력이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 12개의 분석 대상 학술지 이외의 다양한 지면에도 논문을 발표해왔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12개의 학술지 중 논문 발표의 장이 어문계와 비어문계로 확연히 갈리는 것은 일본학계가 크게 둘로 분절되어 있고, 상호 소통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한편, 1명 저자 309명 가운데서는 어문계는 210명, 비어문계는 99명으로 어문계가 68%를 차지한다. 이 중 2000년대 후반에는 각각 162명, 61명으로 어문계가 72.6%에 해당한다. 즉, 12개 학술지에 사회문화 논문을 1편 발표한 저자들 중 어문계에 발표한 사람이 비어문계의 2.1배, 2006~2011년에는 2.7배에 이른다.

같은 일본 전문 학술지에서도 어문계와 비어문계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어문계 학술지와 비어문계 학술지를 비교해보면, 한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어문계 학술지 6개는 모두 등재학술지인 데 비해, 비어문계 학술지 6개 중 3개가 등재, 1개가 등재후보지이며 2개는 미등재지라는 점이다. 어문계 학술지들이 등재후보를 거쳐 등재지가 된 시점은 『일본학보』 2002년, 『일본문화학보』 2004년, 『일본근대학연구』 2009년, 외대 『일본연구』 2006년, 『일본학연구』 2007년, 고대 『일본연구』 2010년이다. 비어문계에서는 『일본연구논총』 이 2006년, 『국제지역연구』 가 2004년, 『한일민족문제연구』 가 2007년, 『한림일본학』 이 2012년이다. 일본공간과 일본비평은 미등재다. 학술지의 등재지 선정 여부는 연구자의 업적 평가와 직결되어 등재지를 찾아 투고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되었는데, 이런 경향이 1편 저자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공동연구나 연구기관에 대한 학술지원사업이 증대함에 따라 그 참여자들이 지원받은 연구사업의 성과를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본다.

5. 연구 주제의 동향

5.1. 주제 도출과 분류 방식에 대해

1990~2011년에 발표된 622편의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 제목을 토대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그 동안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5편 이상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22개로 나왔다. 이 22개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주제로서 5편 미만의 소수인 경우는 모두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타를 제외한 22개 주제는 교육, 지역, 사회운동/시민사회, 인구/고령화, 노동, 복지, 여성, 이주/다문화, 재일조선인, 관광, 미디어/정보, 문화/병리, 사회의식, 대중문화, 종교, 민속/전통, 문화론, 문화정책/문화교류, 예술/예능, 기억, 사회사, 한일관계 등이다.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데도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다. 우선은 분류의 수준을 정하는 문제다. 다양한 주제들을 어느 정도까지 세분화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예컨대 ‘문화정책/문화교류’와 같은 경우, 문화정책과 문화교류라는 두 범주 사이에 공통되는 점이 있는가 하면 이질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둘을 별도의 범주로 두는 것보다는 이질성을 내포하면서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분석의 편의에 좋고, 연구 동향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 하나의 범주로 만들었다. 하나의 범주이면서 두 개의 주제어를 병기한 경우는 모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 ‘이주/다문화’와 ‘재일조선인’은 이주 또는 디아스포라로 함께 묶을 수도 있다. 최근 이주, 디아스포라는 분과학문에서 중요한 테마이므로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도 한일관계의 특수한 문제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론적 관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도 두 주제를 하나의 범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재일조선인은 일본 사회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한국사회 문제이기도 한데, 이 주제가 일본 연구에서 어떤 형태로 발견되고 추구되었는가 하는 것은 한국의 일본연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일본연구의 성격을 좀더 섬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일조선인을 별도의 주제로 뽑아내서 고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주/다문화’는 일본의 다민족, 다문화화와 관련된 논문과 해방 후 귀환한 재조일본인에 관한 논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재조일본인은 관점에 따라서는 재일조선인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이주라는 주제로 묶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재일조선인을 별도로 뽑고, 그 외의 일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논문은 ‘이주/다문화’에 포함시켰다. 재조일본인에 관한 논문 중에서도 해방 이전 시기를 다룬 것은 사회문화가 아닌 역사 분야로 분류하거나 사회문화 중 사회사 분야로 분류하고, 해방 후 귀환한 일본인에 관한 것은 ‘이주/다문화’로 분류하였다.

사회사는 당초 비어문학 논문을 정치, 경제, 역사, 사상, 사회문화로 분류할 때 역사와 사회문화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할지 애매했던 논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로 분류한 것 중 시기적으로 해방 이전 또는 일본의 전전에 해당하는 논문은 주제에 상관없이 모두 사회사로 분류하였다. 이는 사회사의 방법론이나 엄밀한 학문적 정의에 비추어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사회사학회 학술활동이 다양성과 개방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와 학문 영역을 포괄해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대 이전에 관해 다룬 것을 사회사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예컨대 종교, 여성, 교육 등의 주제를 현대 이전의 일본에 관해 다룬 경우는 사회사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사회사 분야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한편 일본 사회문화 분야 연구 방법과 관련한 경향과 특징을 보여줄 수 있

다는 이점도 있다. 즉, 일본의 사회문화 관련 주제를 역사적 방법에 의해 탐구하는 것이 중요한 흐름으로 대두하였음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한일관계’는 당초 기본적으로 정치 분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고찰 대상 12개 학술지에 게재된 한일관계 논문은 대개 정치 분야로 분류되었으나, 명백히 정치 보다는 사회문화 쪽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은 사회문화 분야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일관계 논문은 12개 학술지 전체의 아주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5.2. 주제의 추이: 1990–2011년 전 기간

<표 VIII-8>은 622편의 사회문화 논문을 주제별·연도별로 정리한 표다. 전체 논문 중 기타로 분류된 39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583편이 22개 주제군으로 범주화되어 있다.

〈표 VIII-8〉 사회문화 주제별 연도별 논문편수 추이(1990–2011)

	교육	지역	시민/사회 운동	인구/ 고령화	노동	복지	여성	이주/ 다문화	제일 조선인	관광	미디어 정보	문화/ 병리	사회 의식	대중 문화	종교	민속/ 전통	문화론	문화 교류/ 정책	예술/ 예능	기억	사회사	한일 관계	기타	계	
19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199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9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2	0	0		0	4	
1993	0	9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3	14	
1994	0	3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5	
1995	4	1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1	11
1996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3	5
1997	0	2	0	0	1	0	0	0	0	3	0	0	0	0	1	0	0	0	0	0	0	0	1	0	8
1998	1	3	4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2	0	0	0	0	1	13
1999	0	3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3	0	0	1	0	0	10
2000	0	3	2	1	1	0	0	0	0	0	0	0	0	0	0	1	1	0	2	0	0	0	0	0	11
2001	4	2	1	0	0	3	1	0	3	0	0	0	0	0	0	1	1	1	0	0	0	0	0	1	18
2002	4	1	1	1	0	0	0	0	1	0	0	0	0	0	1	0	2	1	1	0	0	1	0	0	14
2003	2	3	3	1	1	0	1	1	11	0	0	1	1	0	0	1	5	1	0	0	4	4	2	42	
2004	5	0	2	1	1	2	0	2	5	1	2	0	2	4	2	2	0	0	0	0	2	0	1	34	
2005	2	0	0	0	0	2	1	2	2	0	5	0	0	4	3	0	0	1	2	0	1	1	3	29	
2006	1	0	3	2	3	1	0	1	5	1	3	0	0	2	1	4	0	2	1	0	5	2	3	40	
2007	3	1	5	0	3	1	5	2	8	2	1	1	1	13	3	3	1	2	0	0	3	2	0	60	
2008	6	4	0	3	1	3	1	2	9	3	0	0	1	7	3	3	2	0	2	2	10	0	4	66	
2009	1	1	0	0	1	0	3	5	10	2	4	0	1	7	3	3	0	1	3	1	6	2	5	59	
2010	3	1	2	1	2	1	3	3	9	5	3	0	0	6	2	4	6	3	0	8	12	0	4	78	
2011	5	3	3	1	3	3	2	3	13	7	3	5	1	7	3	5	2	2	3	0	15	3	8	100	
계	42	40	28	13	19	17	17	23	77	25	21	7	7	51	23	32	20	22	13	11	60	15	39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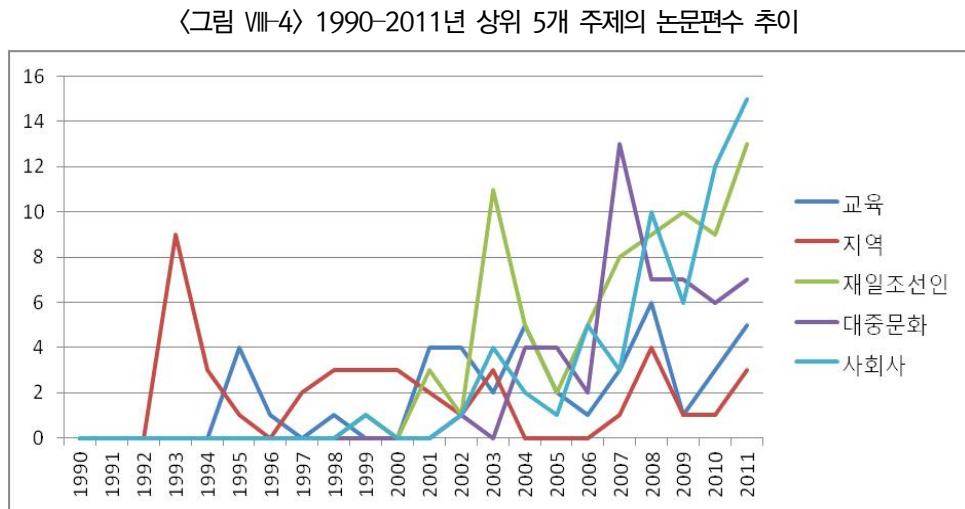
1990-2011년의 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재일조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조선인에 관한 논문은 77편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사회사 60편(9.6%), 대중문화 51편(8.2%), 교육 42편(43%), 지역 40편(6.3%) 등이 상위 5개 주제에 포함된다. 그런데, <표 VIII-9>와 같이 시기별로 나누어서 보면, 이 상위 5개 주제들 사이에도 중대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1-3위인 재일조선인, 사회사, 대중문화는 2006-2011년에 논문이 집중적으로 발표된 데 비해 4, 5위인 교육과 지역은 상대적으로 분산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표 VIII-9> 사회문화 논문 주제별 논문편수 추이

	교육	지역	시민 사회/ 사 회 학 운 동	인구/ 고령화	노동	복지	여성	이주/ 다문화	재일 조선인	관광	미디어 /정보	문화/ 병리	사회 의식	대중 문화	종교	민속/ 전통	문화 론	문화 교류/ 정책	예술/ 예능	기억	사회 사	한일 관계	기타	계
1990-1999	7	20	6	2	3	1	0	2	1	4	0	0	0	0	1	3	2	7	2	0	1	1	8	71
2000-2005	17	9	9	4	3	7	3	5	22	1	7	1	3	9	7	7	7	5	2	0	8	5	7	148
2006-2011	19	10	13	7	13	9	14	16	54	20	14	6	4	42	15	22	11	10	9	11	51	9	24	403
계	43	39	28	13	19	17	17	23	77	25	21	7	7	51	23	32	20	22	13	11	60	15	39	622

재일조선인에 관한 논문은 전체의 70.1%에 해당하는 54편이 2006-2011년에 발표되었다. 1990년대에는 단 1편뿐이던 재일조선인 관련 논문은 2000-2005년에 22편(28.6%)으로 크게 늘었고, 그 후 6년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 3위를 기록한 사회사와 대중문화는 2000년대 후반의 논문 집중도가 더 높다. 사회사는 51편(85%), 대중문화는 42편(82%)으로 압도적 다수가 2006-2011년에 출판되었다. 대중문화를 다룬 논문은 1990년대에는 전혀 없다가 2000-2005년에 9편(17.6%)이 발표되었을 뿐이며, 사회사 논문은 1990년대에 1편, 2000-2005년에 8편(13.3%)에 불과했다. 즉, 이들 상위 3개 주제는 1990년대에는 논문이 거의 없다가 2000년대에 들어 급증한 경우이며, 특히 2000년대 전반에 비해서 후반에 사회사는 6.4배, 대중문화는 4.7배, 재일조선인은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5위에 오른 지역은 이와 대조적인 추이를 보여준다. 22개 주제 중 ‘지역’은 유일하게 1990년대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후 감소한 경우다. 지역에 관한 논문은 모두 39편인데 그 중 절반이 넘는 20편이 90년대에 출판되었다. 이는 1990년대에 발표된 논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2000년대 전반에는 9편으로 현저히 줄었지만 재일조선인, 교육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다른 주제들의 논문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지역 관련 논문은 거의 변함이 없어 2006-2011년에 국한시켜 보면 16위로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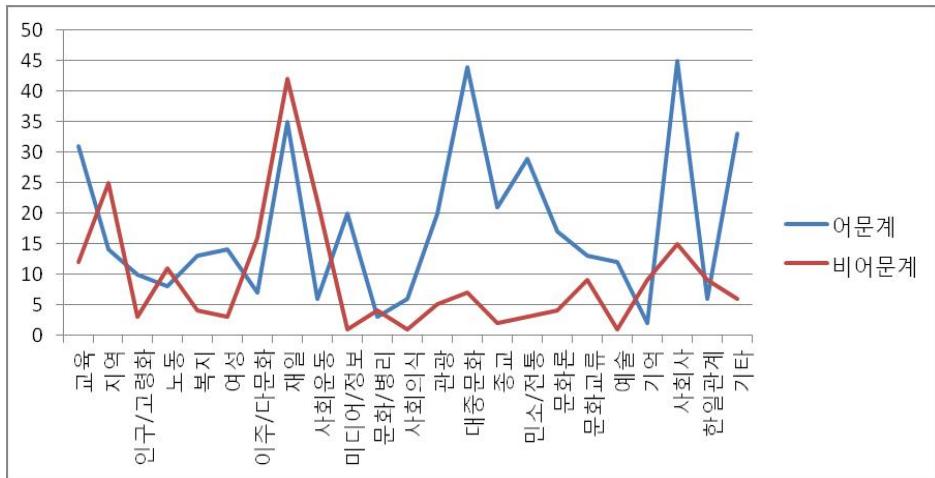
지역 관련 논문이 1990년대에 가장 많이 발표된 데는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지역연구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에 관한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것은 15편이 실린 『국제지역연구』이며, 그 다음이 8편의 『한림일본학』인데, 이 두 학술지에 발표된 지역 관련 논문들은 주로 정부의 해외지역 연구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일본현지조사연구의 성과들이다. 1993-1995년에는 사회학·인류학 연구자 9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연구팀이 3년간 가와사키 지역에 대한 집중 연구를 했다. 이 연구는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교육부가 주관하고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가 관리한 해외지역연구를 위한 연구비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⁸²⁾, 그 성과들은 상당수가 지역종합연구소가 발간하는 『국제지역연구』에 게재되었다. 한편, 1996년 교육부의 해외지역연구 중점연구소로 지정된 한림대 일본학연구소는 1997-1999년에 일본의 3개 지방도시(金沢, 山形, 大分)에 대한 공동 현지조사 연구를 수행했고, 그 성과들은 대개 『한림일본학연구』(현재의 『한림일본학』)에 게재되었다. 90년대 지역 관련 논문 20편 중 이 두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이 15편에 달한다. 이 두 연구 성과로 출판된 논문은 그보다 많은 수지만, 지역이 아닌 다른 주제로 분류되었거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들이 있다.

2000년대 들어 지역 관련 논문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지역 연구 자체의 감소 때문이라기 보다는 계제 학술지의 다양화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일본지역연구가 아닌 분과학문의 학술지들까지 함께 검토해보면 좀더 풍부한 연구 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0-2011년에 12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주제별 양적 추이를 어문계와 비어문계 학술지로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그림 VIII-5>와 같다. 어문계 학술지의 총 논문편수가 2배 가까이 많은 가운데 지역, 이주, 재일조선인, 노동, 사회운동 등은 비어문계가 더 많이 다룬 주제이며, 관광, 대중문화, 종교, 민속, 사회사 등은 어문계 쪽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82) 이시재 외 『일본의 도시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x xii

〈그림 VIII-5〉 1990-2011년 논문의 주제별 양적 추이 어문계/비어문계 비교



5.3. 2006-2011년의 연구 동향

기타를 제외한 22개 주제 가운데서 2006~2011년에 많이 다뤄진 주제들을 꼽아보면 재일조선인, 사회사, 대중문화, 민속, 관광이 1~5위에 해당한다. 이 중 2000년대 전반에도 5위 이내에 들어있던 것은 재일조선인(1위), 대중문화(3위) 뿐이다. 이 상위 5개 주제들 가운데서 관광을 제외한 다른 4개 주제들은 1990년대에 논문이 전혀 없거나 겨우 1편 있는 정도였다가 2000년대 들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2000년대 전반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후반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사회사와 대중문화는 2006~2011년에 80%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관광도 총 25편 중 20편이 2006~2011년에 발표되어 이 시기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나, 90년대에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가 2000년대 전반에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상위에 오르지는 않은 주제들 중에도 2006~2011년에 80% 이상이 발표되는 높은 집중도를 보인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여성, 문화/병리, 기억 등이다. 여성과 문화/병리는 2000년대 전반에 처음 등장했지만 아주 소수였고, 2000년대 후반에 비로소 많이 다뤄졌다. 기억은 2006년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주제다. 미디어/정보와 사회의식도 200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주제인데, 이들은 2000년대 전반에도 어느 정도 다뤄졌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의 논문 집중도는 여성이나 문화/병리보다 많이 낮은 편이다.

반면, 사회운동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 모두 5위 이내에 들었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10위 정도로 떨어졌고, 문화정책도 1990년대에는 3위를 기록했으나 2000년대에는 10위 밖으로 밀렸다.

이러한 현상들은 어떤 합의를 갖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논문 편수가 많을수록 그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나아가 사회의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양적 추이도 학문적·사회적 관심을 일정 정도는 반영하고 있지만, 논문 편수의 많고 적음이 그대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어떤 주제에 대한 논문의 편수는 많아도 특정 학술지 또는 특정 학술지의 특정 호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는 그 주제에 관한 특집이 기획된 경우다. 즉, 특정 학술 집단에서 선도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거나, 특정 집단에서만 이 문제를 천착하는 경우에도 양

적 지표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주제는 사회적 기억의 형성에 관한 것으로 22개 주제 중에서 유일하게 200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주제다. 게재된 논문은 총11편인데 그 중 9편이 『일본비평』의 한 호에 집중되어 있다. <표 VII-10>

<표 VII-10> 사회문화 주제별 학술지별 논문편수(1990-2011)

	일본연구 논총	한일민족 문제연구	국제지역 연구	한글 일본학	일본공간	일본비평	일본학보	일본문화 학보	일본근대 학연구	일본연구 (외)	일본연구 (고)	일본학 연구	총계
교육	3	2	2	0	4	0	18	3	6	2	1	1	42
지역	0	0	16	8	1	1	7	4	0	1	1	1	40
인구/고령화	0	0	2	1	0	0	3	2	0	3	1	1	13
노동	0	0	3	5	2	1	2	1	5	0	0	0	19
복지	2	0	0	0	1	1	6	1	5	0	1	0	17
여성	1	0	0	2	0	0	4	3	4	1	1	1	17
이주/다문화	5	9	1	0	0	1	3	1	1	0	2	0	23
재일	1	28	5	1	2	5	6	16	7	3	3	0	77
사회운동	9	0	6	6	0	1	4	0	1	0	1	0	28
미디어/정보	0	0	0	1	0	0	7	0	4	8	1	0	21
문화/병리	0	0	0	0	0	4	0	2	1	0	0	0	7
사회의식	0	0	1	0	0	0	2	1	1	1	0	1	7
관광	0	0	4	0	1	0	1	0	18	0	1	0	25
대중문화	1	0	0	2	2	2	17	7	9	4	0	7	51
종교	0	0	0	0	0	2	3	8	9	1	0	0	23
민소/전통	0	0	0	1	1	1	12	6	3	3	0	5	32
문화론	0	0	1	1	1	1	5	4	2	4	0	1	21
문화교류	2	0	0	7	0	0	5	0	3	1	4	0	22
예술	0	0	0	1	0	0	2	3	2	2	2	1	13
기억	1	0	0	0	0	8	1	1	0	0	0	0	11
사회사	1	1	1	6	0	6	2	15	11	7	1	9	60
한일관계	3	1	0	4	1	0	1	0	0	4	0	1	15
기타	0	1	1	1	0	3	11	7	12	1	0	2	39
계	29	42	43	47	16	37	122	85	104	46	20	31	622

재일조선인이 2000년대 전·후반에 걸쳐 모두 1위를 기록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재일조선인을 연구 주제로 설정할만한 학문적·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한일민족문제 연구』가 분석 대상 학술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001년에 창간된 『한일민족문제연구』는 민족문제에 특화된 학술지인만큼 다른 학술지들에 비해 재일조선인을 집중적으로 다룬만한 성격을 지닌다. 실제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연구는 처음에는 이 잡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12개 학술지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2000년대 전반에 재일조선

인이 1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한국의 일본학계에서 이 주제가 보편적인 혹은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도 급성장을 했을 뿐 아니라 계재 학술지도 『한일민족문제연구』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여러 학술지로 분포가 확산되었다. 재일조선인에 관한 논문은 『한일민족문제연구』에 실린 것이 전체의 34.6%를 차지하는데, 2000년대 전반 45.5%(22편 중 10편)에서 후반에는 33.3%(54편 중 18편)로 저하되었다. 이는 2006년 이후에는 재일조선인에 관한 논문의 계재 학술지가 다양화되고 증가했음을 뜻한다.

이는 2000년대 전반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학술지 또는 그 학술지의 발간 주체를 중심으로 한 선도적 그룹에 의해 학문적 담론의 장에 올려졌고, 2000년대 후반에 관심이 확산되어 이를 다룬 연구자가 증대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시에 재일조선인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의 맥락도 다양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식민지 지배의 역사 또는 한일관계라는 맥락, 초국적 이주라는 맥락, 또는 국민국가와 시민권, 다문화정책이라는 맥락 등 다양한 관심에서 재일조선인을 주제로 다루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도 2000년대 재일조선인 연구의 확대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민주화 이전에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터뷰 조사 등은 정치적·심리적 부담이 있었고, 따라서 경험적 연구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었다. 민주화 이후, 특히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의 햅볕정책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재일조선인 사회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고, 재일조선인의 한국 방문도 증대했다. 2000년대에는 중국 조선족의 입국이 급증하는 가운데 재외동포법 등 본국에서의 재외한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정책 동향 등도 더해져서 재외한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 재일조선인은 이러한 재외한인 연구의 일환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화 문제, 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 등에 대한 관심은 일본의 비슷한 현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그런 맥락에서 재일조선인 문제를 바라보는 경우도 등장하였다. 물론 일본 내에서 재일조선인의 참정권 운동, 국적 문제 등도 배경이 되었고, 특히 민족학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미디어의 영향이 컸다.

사실 재일조선인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초 재외한인학회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러나, 이는 일본학계가 아닌 분과학문 영역의 학회로 인류학, 사회학 등이 중심이 되었다. 재일조선인 연구는 일본학계 외에 분과학문 쪽의 사회사 분야에서도 다루어졌다. 한국사회사학회는 식민지 시기, 근대 문제 등을 주요한 주제로 다루었고, 일본이나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과학문 영역에서의 흐름과 더불어서 볼 때 2000년대, 특히 2000년대 후반 재일조선인 연구의 증가는 보편적인 맥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는 교과서 문제, 역사인식 문제, 전후처리 문제가 새롭게 쟁점화된 가운데,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나 시민적 권리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재조명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냉전·글로벌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본국과 재일조선인의 관계에 대한 조명도 이루어졌다.

사회사가 2위를 차지한 것도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른 21개 주제들과 달리 사회사는 주제라기보다 분야 또는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사를 주제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사회학이나 인류학, 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연구자들의 연구 관심이 현대를 넘어서서 식민지시대 혹은 근대로 확장되거나(현대와의 연관성 속에서), 주제 자체가 역사적 고찰을 필요로 하는 경

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비록 역사적 접근 방법을 취한 논문이라도 역사 분야로 분류해 버리면 사회문화 분야 연구 동향에서 중요한 특징, 즉 역사적 접근의 증가를 포착해낼 수가 없다. 일단 사회문화 분야로 분류된 논문들 가운데서 현대 이전 시기를 다룬 논문이 2000년대 후반에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것은 사회문화 관련 주제들의 연구의 심화 내지는 확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현상은 식민지 시기나 근대에 대한 관심의 증폭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6-2011년에 각각 3, 5위에 오른 대중문화와 관광은 둘 다 이 시기에 80% 이상의 논문이 집중되었다. 대중문화는 총 51편 중 42편이 이 시기에 발표되었는데, 그 중 거의 1/3에 해당하는 13편이 한류에 관한 논문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겠다. 한류에 관한 글은 모두 14편으로 대부분이 2006년 이후에 나왔고, 나머지 1편은 2005년에 게재되었다. 2000-2005년에는 일본영화에 대한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만화에 관한 글이 2편,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태도에 관한 글이 1편, 그리고 일본의 한류에 관한 글이 1편이다. 대중문화 개방이 중요한 이슈였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전반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던 시기다. 그에 비해 2000년대 후반은 역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일본 진출이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 일본 사회 내지는 대중문화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전반에는 일본 영화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는데, 5편의 논문 모두를 1명의 연구자가 쓴 것이고 게재 학술지도 『일본학보』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 일본영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 또는 학문적 담론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2006-2011년에 한류 다음으로 많이 다뤄진 주제는 12편의 논문이 발표된 애니메이션이다. 이 경우도 12편 중 8편이 영화와 마찬가지로 1명의 저자에 의한 것이며 이 글들은 모두 같은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한류, 애니메이션 외에 영화에 관한 것이 4편, 만화, 한국의 일본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글 등이 있다.

관광에 대한 논문도 총 25편 중 80%인 20편이 2006-2011년에 발표되었는데, 20편 중 18편이 『근대 일본학연구』에 게재되어 학술지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도 관광 논문이 4편으로 당시 다뤄진 주제들 중 4위에 올랐는데, 그 때의 논문들은 모두 『국제지역연구』에 게재되었다. 1990년대의 4편과 2000년대 전반에 『일본학보』에 게재된 1편 등 2000년대 전반까지의 관광에 관한 논문과 2006년 이후의 관광 관련 논문은 이렇게 학술지 면에서 뚜렷이 나뉠 뿐 아니라 성격 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2006년 이전의 관광 관련 논문은 모두 인류학자들의 연구 성과로, 일본의 관광의 역사나 사회조직, 문화 등을 다루었다. 그에 비해 2006년 이후의 관광 논문은 20편 중 7편이 한국 방문 일본 관광객에 대한 연구(부산, 제주도 등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이며, 대개 사회문화적 성격의 고찰이라기보다는 관광 사업에 참고가 될만한 세부적이고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는 관광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2006년 이후의 관광 연구는 주로 관광 사업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와 2006년 이후의 관광 연구는 학문적인 연계성이 적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6. 결론

이상 1990-2011년에 12개 일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2006-2011년의 일본 사회문

화 분야의 연구의 동향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로서 일본연구 가운데서 어문학과 비어문학으로, 비어문학 논문을 다시 하위 범주로, 여기서 사회문화 분야로 분류된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각 단계마다 경계 설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학문 분류 체계(학진 분류)에 잘 맞지 않는 논문이 크게 증가했음을 뜻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제적 연구와 융·복합적 연구의 증가, 각 학문 영역에서 주제의 확장 또는 새로운 관점의 도입 등 학계의 새로운 추세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전문가’의 정체성을 갖지 않는 연구자들에 의한 일본 연구 논문의 증가로도 나타났다. 즉, 연구 주제나 저자 등 여러 면에서 일본연구의 ‘탈경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류상의 어려움은 이번 연구와 같은 일본연구의 동향에 관한 연구가 분석 대상 연구 성과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범주화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해석을 낼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2006~2011년의 6년간 사회문화 분야의 일본관련 연구 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1990년 이래 발표된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의 65.2%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2000년대 전반에 비해서도 약 3배에 가까운 수치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 3년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어문학 전문학술지로 출발했거나 발간 기관이 어문학 기반을 갖고 있는 학술지를 어문계,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어문계로 구분하여 사회문화 논문의 양적 추이를 비교해보면, 어문계 학술지 쪽의 증가 폭이 더 크다. 1990년대에는 비어문계 학술지의 사회문화 논문이 어문계 학술지 보다 많았는데, 2000년대 전반에 어문계 쪽이 비어문계의 1.7배 정도로 역전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그 차가 좀더 벌어져 2배 가까이에 이르렀다.

셋째, 비어문학 논문을 계재하는 일본관련 전문학술지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후 한편으로는 새로운 학술지들이 창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문학 중심이던 기존의 학술지들이 ‘일본학’을 포괄하는 종합적 학술지로 방향 전환을 함으로써 사회문화 논문이 실리는 지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비어문계 학술지 2종이 창간되기도 했지만, 이 시기 사회문화 논문의 비약적인 증가에는 종합적인 일본학 학술지로 성격을 바꾼 어문계 학술지들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3개 학술지가 2000년대 중반에 방향을 바꾼 것이 2006년 이후 지면 확대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연도별 계재 논문 편수가 비어문계는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데 비해 어문계의 경우 특히 2007년 경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학술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넷째, 1990~2011년에 12개 학술지에 사회문화 분야 논문을 발표한 저자 수가 약 400명에 이르러 예상 보다 훨씬 많으며, 그 중 78%가 1편만 쓴 저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본학 조사(세종연구소)에서 조사된 분야별 일본전문가에 대한 조사 결과와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일본 사회문화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연구자 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회문화와 관련된 논문을 써서 발표했음을 뜻한다. 물론 이 가운데는 아직 경력이 짧은 신진 연구자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비일본전문가’에 의한 글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1990~2011년에 12개 일본 전문 학술지 계재 논문에서 다뤄진 사회문화 관련 주제는 ‘기타’를 제외하고도 22개 주제로 분류될 만큼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주제의 다양화는 2000년대에 진전되었고, 특히 2006~2011년에 더욱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다뤄진 주제들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는 본 연구

보다 더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들의 수나 다양성 면에서 본 연구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1990-2011년간의 논문 편수 면에서 1-5위에 해당하는 주제들은 재일조선인, 사회사, 대중문화, 교육, 지역이며, 2006-2011년에는 재일조선인, 사회사, 대중문화, 민속/전통, 관광 등이 1-5위를 기록했다. 이들 중 특히 재일조선인, 사회사, 대중문화 등은 2006-2011년에 논문이 집중되었다.

여섯째, 일본연구의 성장·발전은 정부의 학술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일본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등 해외의 일본연구도 침체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00년대 후반 한국의 일본연구는 크게 성장했다. 이것은 학술지원정책의 긍정적인 면이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술지원사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일정한 양적 기준을 부과하고,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큰 폭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등재학술지를 갖고자 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회의 필요와 등재지 게재 업적을 원하는 연구자의 필요가 합쳐져서, 질적인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단편적인 성과들의 양산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시점이다.

저자 분석에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내지는 못했으나 중요한 시사점을 얻은 것은 12개 학술지에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이 어문계 학술지와 비어문계 학술지 사이에 분절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범주의 주제에 관한 논문이라도 주로 어문계 학술지에 내거나 반대로 비어문계 학술지에만 집중적으로 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두 개의 흐름이 상호 소통이 부재한 가운데 병존하는 것이 향후 일본연구의 질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세종연구소 「2012년 일본학조사 연구자 데이터」 2012년
 이시재 외 『일본의 도시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한영혜 「동아시아지역연구의 제도화와 새로운 딜레마: 일본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동북아 리뷰』 3집3호, 2011

*이상의 문헌 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2개 학술지들과 각 발간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CURRENT STATE OF JAPANESE STUDIES IN KOREA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우)120-8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8-1 버티고빌딩 2~3층

사무실 : TEL 02-397-2820 | FAX : 02-397-2830

문화정보실 : TEL 02-397-2860 | FAX : 02-397-2870

URL : www.jpf.or.kr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

(우)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TEL : 031-750-7500 | FAX : 031-754-0100

URL : <http://www.sejong.org/index.php>